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김민정(Min-Jung Kim)¹⁾
도현심(Hyun-Sim Doh)²⁾
신나나(Nana Shin)³⁾
최미경(Mi-Kyung Choi)⁴⁾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preschoolers' temperament,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It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A total of 155 mothers with preschoolers aged 3 to 4(83 boys and 72 girls), living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designed to measure preschoolers' temperament,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d that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warmth/acceptance and rejection/restriction. Additionally, preschoolers' temperamen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arental efficacy and dissatisfaction. Furthermor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mediated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C00001).

¹⁾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연구교수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³⁾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⁴⁾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parental efficac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activity level and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improving mother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needs to be emphasized in design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enhancing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Key Words : 유아의 기질(preschoolers' temperament), 양육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behavior)

I. 서 론

부모는 아동이 최초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자 환경으로 아동의 인성과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행동으로 생후 초기의 부모역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Doh, Shin, Kim, Park, & Na, 2012; Rohner, Hahn, & Rohner, 1980; Wood, McLeod, Sigman, Hwang, & Chu, 2003). 특히, 부모의 온정이나 애정과 같은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Chun, 1992), 자아존중감(Menon, Tobin, Corby, Menon, Hodges, & Perry, 2007; Park, Choi, & Park, 2000), 자아탄력성(Chung, Kim, & Ha, 2012) 및 학업성취도(Bronstein, Ginsberg, & Herrera, 2005; Kim, 2002) 등 긍정적 발달결과와 관련되고, 거부 및 통제와 같은 특성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Kim & Doh, 2001)이나 우울 및 불안(Lee & Hyun, 2008)과 같은 부정적 발달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온 반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Choi, 2005; Ha & Seo, 2010; Putnam, Sanson, & Rothbart, 2002). 특히 생후 초기 6년은 아동의 신체, 인지 및 정서·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생애의 어느 시기보다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Bornstein, 2002),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의 선행 변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제기된다.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선행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Belsky(1984)의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이 발표된 이후 좀 더 활발히 수행되어 왔는데, 그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특성이나 부모가 지내온 과거의 발달사, 인성, 및 현재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도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 아동의 특성이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인지적 요인이 양육행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Barber, 1998; Lerner & Galambos, 1985; Powell, 2005).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건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로 유아 개인 변인과 어머니 변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인 기질은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개인차로 부모-자녀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인다(Putnam *et al.*, 2002).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인 경향이 있다. 아동의 유전적이고 타고난 기질적 특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Belsky, 1984; Shin, 2011), 대체로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성은 반응적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었고(Oh, 2006), 적극적이고 자기규제를 잘하는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Sanson, Hemphill, & Smart, 2004). 반면,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과 같은 까다로운 기질은 통제적, 거부적 또는 무반응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im, 1994; Hemphill & Sanson, 2000),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은 기질적 특성은 과보호나 통제적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Aunola & Nurmi, 2005; Olsen, Yang, Hart, Robinson, Wu, & Nelson, 2002;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 & Chen, 1997). 또한, 유아의 기질 중 주의 집중성은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나 애정과 관련성이 있었고, 활동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 지시/통제 및 거부/적대와 관련이 있었다(Lim & Park, 2001). 이상과 같이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일수록 긍정적으로 양육되기 쉬우며,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일수록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하여, 부정적인 양육을 이끌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요구가 많고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오히려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다 기술적으로 발달시켜 부모로 하여금 더욱 반응적이고 민감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들은 까

다로운 영아의 울음에 대해서 더 반응적이고 보호적인 행동을 나타내었으며(Yoo & Park, 1992), 짜증을 많이 내는 까다로운 유아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관여하였다(Crockenberg, 1986). 이 외에 아동의 기질과 양육행동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Plomin & Daniel, 1984). 이처럼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은 기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유아의 또 다른 특성이나 부모 관련 요인에 의해 매개 또는 중재될 수도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다음으로 양육행동의 선행 변인 중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 가운데 양육효능감은 Bandura(1986)가 강조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개념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육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정의된다.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는 인지적 특성으로, 양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05; Teti & Gelfand, 1991).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 반응적, 온정적이고 비차별적이거나 자녀를 감독하는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Desjardin, 2003; Leerkes & Crockenberg, 2002). 즉,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Hyun, 1994; Moon, 2001).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 애정적인 양육행동 및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고(Moon, 2001), 자녀와의 놀이상황에서 부모가 부모로서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관적으로 양육하였다(Mondell & Tyler, 1981).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부모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으로 훈육할 가능성이 높았으며(Ahm, 2001; Kim, 2005; Teti & Gelfand, 1991),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Lerner & Galambos, 1985).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 습득,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 보다 나은 양육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노력 및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과도 관련되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이처럼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와 자녀양육에 대한 개입과 중재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다루었는데, 몇몇 연구들은 또한 유아의 기질을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선행 요인으로 보고하며 양자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유아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이 낮고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았다(Kim & Lee, 2011; Moon, 2005). 유아기 이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Jung, 2009), 학령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서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Choi, 2005). 이 외에, 자녀의 기질을 까다로운 기질과 순한 기질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자녀를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로 인식할수록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utrona & Troutman, 1986). 이와 같이 양자 간의 관련성이 보고되기는 하나, 유아기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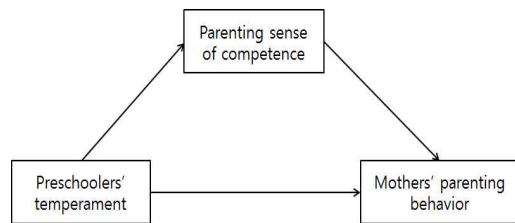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볼 때, Abidin(1990)은 아동 특성 자체보다도 양육자의 인지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몇몇 연구들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의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i, 2005)에서, 아동의 기질은 양육효능감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수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우울, 가난,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원과 같은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기도 하였다(Coleman & Karraker, 1997). 이 외에도,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을 이끈다는 연구결과(Oh, 2006) 역시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중요한 변인임을 가정하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과 양육효능감 간의 경로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보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생후 초기에 속하는 유아기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선행 관련 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리고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기질

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Figure 1> Linking preschoolers' temperament to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rough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I. 연구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만 3-4세 유아($M = 46.87$ 개월, $SD = 4.64$ 개월)와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단기종단연구에 참가 중인 155명의 어머니들이 참가하였다. 유아의 행동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가운데 부모의 양육요인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Naughton, Mann,

Tempest, Kemp, & Maguire, 2011)에 근거하여 아동행동문제의 예방적 측면에서 이 시기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은 만 3세가 75.5%(117명), 만 4세가 24.5%(38명), 성별은 남아가 53.5%(83명), 여아가 46.5%(72명)이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54.2%(84명), 둘째가 41.3%(64명), 셋째 이상이 4.5%(7명)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5-39세가 46.5%(72명), 30-34세가 23.9%(37명)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47.1%(73명), 30-34세가 37.4%(58명)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9.0%(7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21.3%(33명)이었으며,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41.9%(6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25.8%(40명)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37.4%(58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6.1%(25명),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14.2%(22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36.8%(57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9.0%(45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1.0%(17명)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Windle와 Lerner(1986)의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를 Suh와 Yi(2009)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적응적 기질(이하, 적응성)(9문항), 활발한 기질(이하, 활동성)(12문항), 그리고 규칙적 기질(이하, 규칙성)(9문항)의 3개 하위요인(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적응성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빨리 친해진다.’, ‘대체로 명랑한 편이다.’ 등이, 활동성에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잠자면서 많이 움직인다.’ 등이, 규칙성에는 ‘매일 밤 거의 일정한 시간동안 잠을 잔다.’, ‘매일 대체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등이 포함된다. 적응성, 활동성 및 규칙성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0, .68, .81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경우는 .71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Kim(2008)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SOC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8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불안(9문항)의 두 가지 요인,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본 척도를 사용한 연구자들에 의해 번역된 ‘부모로서의 좌절감/불안’은 원칙도상으로는 ‘부모로서의 불만족감(parental dissatisfaction)’을 의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이하, 효능감)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하, 불만족감)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효능감은 ‘부모 역할은 할 만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나는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

인지 알고 있다.’ 등을, 불만족감은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때때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조종당하는 느낌이 든다.’, ‘때때로 나는 어떤 것도 해낸 것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등을 들 수 있다. 효능감과 불만족감의 Cronbach's α 는 각각 .69과 .69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경우는 .79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Kim(2003)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Schaefer(1965)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수정·번안한 Park(1995)의 척도에 기초한 것으로, 온정·수용(10문항), 거부·제재(10문항), 허용·방임(10문항)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온정·수용은 ‘아이의 기분을 잘 이해해 준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한다.’ 등을, 거부·제재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아이에게 보기도 싫다고 말할 때가 자주 있다.’ 등을, 허용·방임은 ‘아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 버릴 때가 많다.’, ‘아이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등을 들 수 있다. 온정·수용,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 등 각 요인별로 산출된 Cronbach's α 는 .83, .86 및 .76이었고, 전체 문항의 경우는 .86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의 동의하에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에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만 3-4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년간에 걸쳐 4차례 조사를 실시하는 단기종단연구의 첫 번째 조사로서 실험실 방문조사에 동의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어머니들이 본교에 방문하여 직접 질문지를 작성함으로써, 본 연구에 참가한 155명의 어머니 모두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에서의 성차 및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t -검정을 실시하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기질과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유아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롯하여,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와 유의성은 Sobel 테스트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하(1.24~1.88)와 0.1이상(0.53~0.91)

을 보여 회귀분석의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erry & Feldman, 1985).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Table 1). 유아의 기질 가운데 적응성은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와 각각 유의한 정적 및 부적 상관을, 활동성은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와 각각 유의한 부적 및 정적 상관을, 그리고 규칙성은 온정·수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의 경우,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Table 1> Intercorrelations among preschoolers' temperament,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N = 155$)

Variables	1	2	3	4	5	6	7	8
<u>Preschoolers' temperament</u>								
1. Adaptability	-							
2. Activity level	.15	-						
3. Regularity	.06	-.15	-					
<u>Parenting sense of competence</u>								
4. Parental efficacy	.31**	-.29**	.22**	-				
5. Parental dissatisfaction	-.29**	.26**	-.21**	-.51**	-			
<u>Mothers' parenting behavior</u>								
6. Warmth/acceptance	.28**	-.26**	.22**	.51**	-.44**	-		
7. Rejection/restriction	-.28**	.20*	-.08	-.30**	.54**	-.55**	-	
8. Permissiveness/neglect	-.10	.07	-.16	-.15	.29**	-.12	.22**	-

* $p < .05$. ** $p < .01$.

중 효능감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 허용·방임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양 변인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온정·수용과는 정적으로, 거부·제재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불만족감은 온정·수용과는 부적으로,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아의 적응성과 규칙성은 효능감과는 정적으로, 불만족감과는 부적으로, 그리고 활동성은 효능감과는 부적으로, 불만족감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2.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beta = .32, p < .001$), 활동성($\beta = -.32, p < .001$) 및 규칙성($\beta = .15, p < .05$)이었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21%이었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는 적응성($\beta = -.32, p < .001$)과 활동성($\beta = .24, p < .01$)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4%이었다. 즉, 유아의 기질을 적

응적이고 활동성이 낮으며, 규칙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머니들은 자신이 온정·수용적으로 양육한다고 응답한 반면,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스스로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한다고 응답하였다. 유아의 적응성, 활동성 및 규칙성 모두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2).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온정·수용적 양육에는 양육에 대한 효능감($\beta = .39, p < .001$)과 불만족감($\beta = -.24, p < .01$)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30%이었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는 불만족감($\beta = .52, p < .001$)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9%였다. 즉, 자신의 양육에 대해 효능감이 높고, 불만족감이 낮을수록 어머니들은 자녀를 온정·수용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불만족감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효능감과 불만족감 둘 다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Table 2> Preschoolers' temperament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 (N = 155)

Predictors	Warmth / acceptance		Rejection / restriction		Permissiveness / neglect	
	B	β	B	β	B	β
<u>Preschoolers' temperament</u>						
Adaptability	.28	.32***	-.35	-.32***	-.09	-.10
Activity level	-.33	-.32***	.32	.24**	.06	.06
Regularity	.12	.15*	-.02	-.02	-.12	-.14
R ²	.21		.14		.04	
F(df)	13.58***(151)		8.12***(151)		1.82(151)	

* $p < .05$. ** $p < .01$. *** $p < .00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3).

4.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효능감에는 유아의 적응성($\beta = .34, p < .001$), 활동성($\beta = -.28, p < .001$) 및 규칙성($\beta = .16, p < .05$)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0%이었다. 불만족감의 경우는 유아의 적응성($\beta = -.32, p < .001$)과 활동성($\beta = .28, p < .001$)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0%이었다. 즉,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과 규칙성이 높고

활동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들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높은 반면,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았다. 그러나 유아의 규칙성은 어머니의 불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4).

5.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본 연구에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들, 즉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그리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등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가 충족된 경

<Table 3>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 ($N =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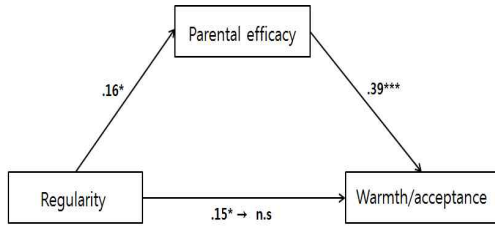
Predictors	Warmth / acceptance		Rejection / restriction		Permissiveness / neglect	
	B	β	B	β	B	β
<u>Parenting sense of competence</u>						
Parental efficacy	.40	.39***	-.04	-.03	-.01	-.01
Parental dissatisfaction	-.22	-.24**	.60	.52***	.27	.29
R ²	.30		.29		.09	
F(df)	33.08***(152)		31.12***(152)		7.20**(152)	

** $p < .01$. *** $p < .001$.

<Table 4> Preschoolers' temperament predicting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N = 155$)

Predictors	Parental efficacy		Parental dissatisfaction	
	B	β	B	β
<u>Preschoolers' temperament</u>				
Adaptability	.30	.34***	-.32	-.32***
Activity level	-.29	-.28***	.32	.28***
Regularity	.13	.16*	-.13	-.15
R ²	.20		.20	
F(df)	13.77***(151)		12.32***(151)	

* $p < .05$. *** $p < .001$.



* $p < .05$. *** $p < .001$.

<Figure 2>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regularity and mothers' warmth/acceptance

우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제외하고, 총 7가지였다. 이어서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세 가지 단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즉,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유아의 기질이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2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후,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7가지 가운데 완전 매개적 역할이 2가지, 부분 매개적 역할이 5가지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각각에 대해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과 관련하여,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는 다음과 같이 각각 1가지와 4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유아의 규칙성과 효능감을 함께 투입했을 때, 유아의 규칙성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15, p < .05 \rightarrow n.s.$).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규칙성이 양육에서의 효능감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2.34,$

$p < .05$). 즉,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유아의 규칙성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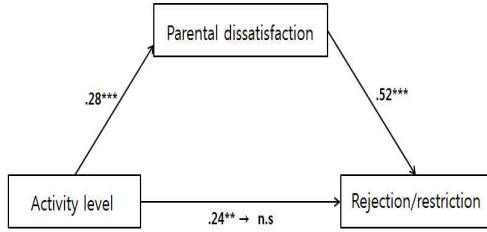
둘째, 유아의 적응적인 기질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육에 대한 효능감($\beta = .32, p < .001 \rightarrow \beta = .19, p < .05$) 혹은 불만족감($\beta = .32, p < .001 \rightarrow \beta = .22, p < .01$)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감소하였다.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적응성이 양육에서의 효능감 혹은 불만족감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효능감 : $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3.44,$

$p < .001$, 불만족감 : $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2.74, $p < .01$). 즉,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과 불만족감은 유아의 적응성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활동성의 경우도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beta = -.32, p < .001 \rightarrow \beta = -.21, p < .01$) 혹은 불만족감($\beta = -.32, p < .001 \rightarrow \beta = -.24, p < .01$)과 함께 투입했을



** $p < .01$. *** $p < .001$.

<Figure 3>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dis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activity level and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때,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효능감 :

$$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2.84, p < .001, \text{ 불만}$$

$$\text{족감} : 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2.30, p < .05),$$

유아의 활동성이 양육에 대한 효능감 혹은 불만족감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과 불만족감은 유아의 활동성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완전 매개적 역할이 1가지, 부분 매개적 역할이 1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유아의 활동성은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24, p < .01 \rightarrow \text{n.s.}$).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활동성이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을 통해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2.74, p < .01$). 즉,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은 유아의 활동성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Figure 3).

다음으로, 유아의 적응성과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적응성이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였다($\beta = -.32, p < .001 \rightarrow \beta = -.16, p < .05$).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적응성이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을 통해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3.59, p < .001).$$

즉, 유아의 적응성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4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고 활동성이 낮으며, 규칙적일수록 어머니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적응성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통제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Kim & Kim, 2002)나 유아의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어머니가 지시·통제적이고, 거부·적대적으로 양육하기 쉽다는 연구결과(Lim & Park, 2001)와도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사회성이나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연구결과들(Crockenberg & Acredolo, 1983; Kim & Lee, 2011)과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가 새로운 상황에 보다 적응적이고 생활 전반에 규칙적인 습관을 가질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반면,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정도가 낮거나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경우 어머니가 다루기 어렵다고 지각하고 자녀에게 거부적으로 대하거나 자녀의 행동에 통제를 가하기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Choi, 2005)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무관심한 양육태도가 유아기 자녀의 기질보다는 어머니의 기질이나 성격적 특성이 갖는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Park, Lee, Moon, & Kwon, 2010)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자신의 부정적 정서나 성격특성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를 방임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예비분석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 가운데 허용·방임 요인과 다른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는 점에서,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이 방임과 같은 부정적 문항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의 측면에서 다소 축소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온정 및 수용이나 거부, 제재 및 통제와 같은 변인들은 많이 다루어져 왔으나(Oh, 2006; Olsen *et al.*, 2002; Sanson *et al.*, 2004; Shin, 2011), 허용이나 방임과 같은 양육행동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다는 점(Choi, 2005)에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불만족감이 낮을수록 온정·수용적으로 양육하였으며, 불만족감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하였으나,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자율성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Choi, 2005; Desjardin, 2003; Lee, 2009)과 일관된 결과이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훈육행동과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연구결과(Leekers & Crockenberg, 2002)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낮은 양육효능감이 통제적, 강압적이며, 수동적, 소극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

(Choi, 2005; 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즉,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할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기 쉬울 것이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im, 2009)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양육효능감이 애정적인 양육행동에는 정적 영향을, 권위주의적 양육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결과(Kim & Lee, 2011)와는 일치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임 문항의 응답 과정에서의 문제, 즉 사회적 바람직성의 측면으로 응답했을 가능성과 더불어, 방임적 양육은 의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Song, 1993)에서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는 이를 간과하여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적응성과 규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았으며, 활동성이 높을수록 효능감이 낮았다. 또한 유아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낮았으며, 활동성이 높을수록 불만족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성이 높고 부정적인 정서성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들(Kim & Lee, 2011; Moon, 2005)이나 영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과,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Cutrona & Troutman, 1986; Teti & Gelfand, 1991)과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영아의 사회성 기질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Ha & Seo, 2010)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특히, 유아의 적응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매우 밀접한 상관을 보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는 자녀가 새로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적응적일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며 부모의 훈육행동이 더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즉, 활동성이 높은 특성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이나 발달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나아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어,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 혹은 부분 매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유아의 규칙성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은 유아의 활동성과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유아의 규칙적인 기질은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이는 다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연결된 반면, 유아의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어 자녀를 거부하거나 통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유아의 적응성 및 활동성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은 유아의 적응성 및 활동성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그리고 유아의 적응성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즉, 유아가 보다 더 적응적이고 덜 활동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져서 이는 결국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유아의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아져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기질과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발견한 연구결과(Choi, 2005)나 영아의 기질과 사회적 지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한다는 연구결과(Teti & Gelfand, 1991)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성이나 긍정적 정서성을 포함한 순한 기질과 애정적 양육행동은 부분매개를, 권위주의적인 통제와는 완전 매개한 연구(Kim & Lee, 2011)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기존의 영아나 학령기 대상의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를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며, 기질의 측면을 적응성, 활동성 및 규칙성 등의 요소로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요약해 보면, 유아의 높은 규칙성 및 적응성과 낮은 활동성의 기질은 높은 양육효능감에 이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유아의 높은 활동성과 낮은 적응성은 낮은 양육효능감에 이어 거부적인 양육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발견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로 하여금 높은 양육효능감과 긍정적 양육행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기질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전문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양육효능감이 교

육이나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Gross, Fogg, & Tucker, 1995)에 근거할 때,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을 통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Kim & Lee, 2011)와 차이가 있다. 아동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을 통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다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utrona & Troutman, 1986)와 같이, 본 연구결과 역시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작용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긍정적 기질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양육행동에 대해 유아의 기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유아의 기질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양육에 대한 인지적 측면인 양육효능감이 어머니가 긍정적 양육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유아의 기질특성에 대한 이론적 내용은 물론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자 하는 실제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등 모든 연구변인들을 어머니 보고에 의해서만 조사하였다. 이 경우, 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축소 또는 과장될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보고자를 포함하는 연구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질문지법 외에도 관찰법이나 면접법을 포함한 다양한 조사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만 초점을 두었으므로 또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비롯하여,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그 경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행동 요인들 가운데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 관련 변인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관련 변인인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인지적 특성인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References

- Abidin, P.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Ahn, J. Y.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 Barber, B. K. (1998).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youth problem behaviors : A two-sample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119-13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tion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rry, W. D., & Feldman, S.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no. 07-050). Newbury Park, CA : Sage.
- Bornstein, M. H. (2002). Parenting infa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2nd ed., pp. 3-43).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onstein, P., Ginsburg, G. S., & Herrera, I. S. (2005). Parental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arly adolescence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59-575.
- Choi, H. S. (2005). The mediational role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 The casual relations model of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351-365.
- Chun, H. Y. (1992). *Temperament typology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in Korean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K. S., Kim, M. J., & Ha, E. S.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happiness, parenting efficacy and ego-resiliency of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1), 73-97.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rockenberg, S.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In J. V. Lerner & R. M. Lerner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during infancy and childhood*(pp. 53-73). San Francisco : Jossey Bass.
- Crockenberg, S., & Acredolo, C. (1983). Infant temperament ratings : A function of infants, or mothers, or both?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61-72.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esjardin, J. L. (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The Volta Review*, 103(4), 391-409.
- Doh, H., Shin, N., Kim, M., Park, B., & Na, J.(2012).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abuse and neg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5), 107-119.
- Ha, J. Y., & Seo, S. J. (2010).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 and maternal parenting variables on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379-389.
- Hyun, O. K. (1994).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 Guk University, Seoul, Korea.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 861 - 868.
- Gross, D., Fogg, L., & Turker, S. (1995) The efficacy of parent training for promoting positive

- parent-toddler relationship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8, 489-499.
- Hemphill, S. A., & Sanson, A. (2000). *Relations between toddler and preschooler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in an Australian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Beijing, China.
- Jung, J. O.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ocio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their temperament and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E. Y. (2005). *The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dysfunctional discipline practice to child's adjustment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M., & Doh, H. S.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 Kim, M. J. (2003).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their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J. (2008). *Development and effects of intervention program for aggressive young children : focus on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and parent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J. (2009). Influence of foster parents' parenting efficacy on rear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4), 281-292.
- Kim, M. J., & Doh, H. S. (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149-166.
- Kim, Y., & Kim, Y. (2002). The effect of children's temperament & parents' personality on parent-child inter, action. *Journal of Human Ecology*, 5, 123-140.
- Kim, M., & Lee, K. (2011). Effects of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4), 253-271.
- Kim, S. R.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ing mother's attitudes in child rearing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 Lee, C. S., & Hyun, E. J. (2008).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morality,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3), 223-238.
- Lee, J. Y.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yle of mothers with infants :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5), 35-48.
- Leerkes, E. M., & Crokenberg, S. C. (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Lim, H. S. (1994).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on the first-bor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im, H. S., & Pak, S. Y. (2001).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37-53.
- Menon, M., Tobin, D. D., Corby, B. C., Menon, M., Hodges, E. V. E., & Perry, D. G. (2007). The developmental costs of high self-esteem for antisocial children. *Children Development, 78*(6), 1627-1639.
- Mondell, S., & Tyler, F.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u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Moon, H. J. (2001). A study of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205-220.
- Moon, H. J. (2005). Predictors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139-149.
- Naughton, A., Mann, M., Tempest, V., Kemp, A. M., & Maguire, S. (2011). Can we identify the neglected/emotional abused preschool child? A systematic review.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96*(5), 108.
- Oh, H. S. (2006).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character, and mother's satisfaction and rearing behavior in Korea.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 Women, 11*(2), 211-226.
- Olsen, S. F., Yang, C., Hart, C. H., Robinson, C. C., Wu, P., & Nelson, D. A., (200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35-262).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ark, H. J., Lee, J. Y., Moon, K. J., & Kwon, J. H. (2010). Effects of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character on parenting attitude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1), 25-44.
- Park, Y. A., Choi, H. Y., & Park, I. J. (2000). Effects of mother's personality traits o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2), 71-88.
- Park, Y. Y. (1995).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lomin, R., & Daniels, D. (1984). The interaction between temperament and environment :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30*, 149-162.
- Powell, D. R. (2005). Searches for what works in parenting intervention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343-373).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utnam, S. P., Sanson, A., & Rothbart, M. K. (2002).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N.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Vol.

- 1, 2nd Ed.). Mahwah NJ. : Erlbaum.
- Rohner, R. P., Hahn, B. C., & Rohner, E. C. (1980). Social class differences i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self-evaluation among Korean-American children.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55-66.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Henderson, H. A., & Chen, X.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 467-483.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1), 142-170.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8*, 413-424.
- Suh, J. H., & Yi, S. H. (2009). The bio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s : With a focus on child'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style and goodness of fit.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6), 229-242.
- Shin, J. Y. (2011). Relations among child's temperamen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practices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erner-Centered Curriculum on Instruction, 15*(2), 292-312.
- Teti, O.,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indle, M., &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213-230.
- Wood, J. J., McLeod, B. D., Sigman, M., Hwang, W-C., & Chu, B. C. (2003).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 Theory,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44*, 134-151.
- Yoo, M. H., & Park, S. Y. (1992). Maternal perception and reactions to infant' crying as a function of easy-difficult infant tempera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2*(2), 173-191.

2012년 12월 31일 투고, 2013년 3월 29일 수정
2013년 4월 16일 채택